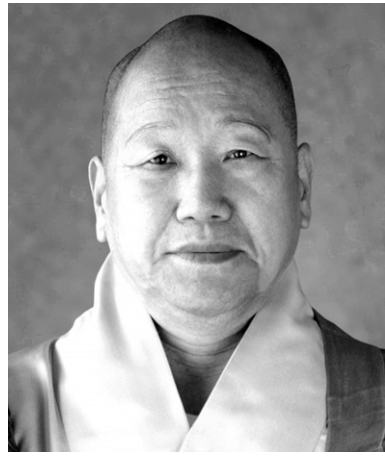


“대용맹심 발하여 화두를 타파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상략〉 중생의 근본 업(根本業)은 탐진치(貪嗔癡)라. 세 가지 근본 업을 제거하지 못하면 편안한 날이 없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사 탐진치 삼업을 몰록 제거하고 대도(大道)를 이루어 부처님과 같은 대지혜(大智慧)와 무량대복(無量大福)을 누리겠는가.



있고 범법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밖으로 치달린다면 수행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자제이니 어느 세월에 탐진치 삼업을 다 녹이고 시은(施恩)을 다 갚으시오.

그러니 모든 대중들이여, 결제 해제에 간여하지 말고 오로지 일상생활 속에 오매 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단가?”

하고 날마다 천 번 만 번 의심하고 의심하여 일념삼매가 도래하도록 혼신의 정진을 다할지어다. 〈중략〉

백장스님은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시 마

조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마조선사는 백장스님이 들어오자 법상각(法床角)에 걸여 둔 불자(拂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백장스님이,

“이를 바로 쓰십니까. 이를 여의고 쓰십니까?” 하고 물으니, 마조선사께서 불자를 다시 법상각에 걸여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장스님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장차 두 입술을 열어 어떻게 만 중생을 위해가려 하는고?” 하시니, 이번에는 백장스님이 법상각에 걸여둔 불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마조선사께서 또 물으시기를,

“이를 바로 씹인가, 이를 여의고 씹인가?” 하시니, 백장스님이 마조선사와 같이 불자를 법상각에 걸여두는 참나에, 마조선사께서 벽력같이 함(喝)을 하였습니다.

“어허[喝]!” 이 같은 마조선사의 할 아래 백장스님이 삼 일간 귀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대중은 마조·백장 부자간(父子間)의 문답체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낙처(落處)를 알면 제불제조(諸佛諸祖)와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략〉

큰 깨달음은 항상 눈 앞에 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세월이 유수 같아서 어느 덧 동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철 동안 대도(大道)가 무엇인지를 각자 근기에 맞게 열심히 수행하였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무리가 아름답아야 그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일어나고[心生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이 사라진다[心滅種種法滅]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기에 출가수행자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마(魔)의 제 장애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를 경계하여 ‘십종마(十種魔)가 말세에 나의 법중(法中)에 있어서 출가하여 수도하며, 이미 정변지각(正遍知覺)을 이루었다고 속이고, 계율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며, 드디어 악마사(惡魔師)와 마(魔)의 제자가 되어 음욕을 서로 전하여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리

(菩提)라고 잘못 인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하는 사람이 미혹하여 지금 자기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공부가 어떤 경계까지 이르렀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아만심(我慢心)을 내어서는 안 되며, 완미(頑迷)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행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행을 떠나 주유전하할 때에는 부디 삼독심에 물들지 말고, 더욱 더 자신을 다잡아 올바른 소견을 굳건히 견지할 수 있도록 수행의 고삐를 놓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삭발인경설만도(削髮因驚雪滿刀) 머리를 깎다가 삭도에 눈이 가득해 놀라고

방기세월불상오(方知世月不相隨) 바야흐로 세월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

도생탈사근성불(逃生脫死動成佛) 삶과 죽을 벗어나고자 하면 부지런히 부처가 되라.

막대명조여후조(莫待明朝與後朝) 막대아침 모래아침을 기다리지 말고 하라.

결제는 수행자가 만든 영산회상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해제 무렵 원오극근 선사에게 어떤 날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구순안거(九旬安居)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법(法)과 다르지 않았노라.”



쌍을 때 큰돌이건 작은 돌이건 울리기만 하면 빈틈없이 들어맞는 것처럼 불조의 혈맥이 말마다 관통하고 행동의 움직임마다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승천 사확(承天辭確)선사에게 어떤 날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본분사 해결까지 내것 없어”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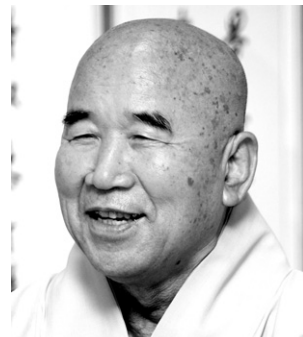
〈상략〉 석 달 전에 결제를 했다가 오늘 해제를 하는데 무엇을 해제하려고 합니까?

결제할 때의 그 마음이 순일하게 이어졌다면 제대로 해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해제는 이름뿐입니다.

수행자는 처음도 끝도 안목이 투철해야 합니다. 눈속임으로 쳐놓은 허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오랜 세월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객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삽니다.

다시금 웃기를 여미고 정진을 오롯하게



가다듬어 성성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살길은 이길 뿐이라고 간절해야 합니다. 생사라고 하는 그름은 잠시만 방심해도 거기에 걸려들고 맙니다.

잠시라도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줄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눈앞에 보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정진하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만공선사(滿空禪師)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제(結制)에 결제 없고 해제(解制)에 해제 없는 것이 진정한 결제로 해제라 하셨는데, 금일(今日) 대중은 어떤 결제(結制)와 해제(解制)를 했습니까?

진정한 결제와 해제를 하였다면 생사(生死)를 초탈하여 인연(因緣)따라 노닐고 일체경계(一切境界)에 자재(自在)하여, 위로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아래로 중생들을 제도하며 홀로 하늘 땅을 거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은 우리들이 영원(永遠)히 지켜야 할 만고불



변(萬古不變)의 수행방법(修行方法)입니다. 수행자의 덕목은 극기(克己)와 자제(自制) 그리고 인욕(忍辱)입니다. 수행자는 한 때도 방심(放心)해서는 안됩니다.

〈중략〉 공부인(工夫人)은 정안(正眼)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해제·결제 없이 몸가

“모든 언행이 도를 드러내는 것이니라.”

집이 가난하면 거친 음식도 가릴 여지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이 다급해지면 글씨를 휘갈겨 쓸 여유마저 없습니다. 그저 분별심없이 손 가는대로 집어드는 그대로 하나하나가 모두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까치가 외로운 노송나무에서 울고 있는 것도 조사의 심인(心印)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정물(有情物)의 설법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이는 무정물(無情物)의 설법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법입니다. 도(道)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진다면 까치는 까치대로 노송은 노송대로 자기할 일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이들은 무정물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는 법입니다.

결제공부가 모자랐던 이는 해제를 결제 삼아 더욱 향상일로(向上之路)해야 할 것입니다. 〈하략〉

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세가 그럴 듯해도 허수아비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들짐승이나 새들에게는 통하겠지만 눈 보고 힘 센 소에게는 그저 먹을 거리에 불과 합니다.

수행자의 안목이 이리할 때 자신의 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시주의 은덕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고요한 선방이 몸뚱이 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 분사를 해결하기 전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수행자들이 모두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야 세상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해질 것입니다.

해제의 끈을 다시 동여 매어서 自縛自縛(자승자박)의 율가미를 끊어내는데 응심해야 하겠습니까. 〈하략〉

집을 조심하면서 정진해야 합니다. 삼개월(三個月) 결제(結制)동안 정진을 잘했어도 해제(解制)되어 육진경계(六塵境界)에 돌아다니면서 육적(六賊)에 도둑맞아서 결제 때 모아 온 공부(工夫)힘을 다 털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처님과 역대조사와 선지식이 한결같이 만연(萬緣)을 쉬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계(境界)에도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진범부(但盡凡夫)이언정 범무성해(別無聖解)라 했듯이 취사(取捨) 선택의 분별심(分別心)만 떨어지면 그대로 견성(見性)이요, 성인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요새처럼 공부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공부환경(工夫環境)은 최고입니다. 헛되이 시간(時間)을 보내지 말고 마음껏 정진을 하십시오. 〈하략〉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상보하음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四生)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송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를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송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에게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범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니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손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송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빠르고 시큰 거려서 출다가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을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질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상소장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쪽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외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 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